

충남방적, 에스지위카스와 본계약 체결

충남방적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인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M&A 본계약은 충남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 800만주(액면가 5000원)를 1주당 1만2350원, 총 988억원에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계약 체결로 충남방적은 정리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신규사업 투자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방적의 상장폐지로 피해를 봤던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매수 조항을 본계약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따라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은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공개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지위카스를 비롯해 고려, KM&I가 참여한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은 4월13일 충남방적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4월24일 충남방적과 M&A에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화학저널 2007/06/26>